



우리서로 잡은손

With Our Hands Together

2008 장애인의 날 사랑의 만찬

일시: 2008년 4월 19일 (토요일) 7:30pm

장소: 대동연회장 그랜드 볼룸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주최: 국제선교협회 (International Mission Association Inc.)

135-53 Northern Blvd.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 353. 3791 Fax. 718.353.5695

www.imdusa.org

후원: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뉴욕한인회, 미주기독교방송KCBN
뉴욕밀알선교합창단, NY바울선교회

선교회가 세워진지 열여덟해를 맞이하여 _

2008장애인의날 "우리서로잡은손"행사는
그동안 함께 응원하여 주셨던 님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앉고 싶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속에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만남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님들
어려워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원을 아끼지 않았던 님들
조그마한 실수에도 언제나 겸손하고 미소로 힘내라고 손잡아주셨던 님들

예수님 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동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실상으로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두려워말라고 염려하지말라고 사랑한다며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여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손을 잡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
이시간이 이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으로 남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심은 수고가
그 어느날 기쁨과 영광의 열매로 결실하여 감사가 충만한
날들이 올것을 믿습니다.

이제 선교회가 새이름 국제선교협회로 거듭났습니다
국제선교협회 안에 국제장애인선교회, 방송선교, 해외선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여 주시고 지킴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08년 4월19일 박 선속



초대의 글



2008. 4. 19

장애인들과 병원 낯선분 그리고 나가 세계속에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운 선교회가
열여덟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회의 모든 사역에 밑거름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열매맺는 곳마다 밑거름의 아름다운 희생의 능력이 있음같이 선교회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변함없는 성김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이번 국제선교협회 가 마련한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손” 행사는 삶에 바퀴에 지친 우리모드가
잠간 멈추고 초월된 사랑안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배려가 어렵고 성김의 손길이 멀어져 가는 계절에 변함없이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사랑으로 악한자 소외된 모든 이들의 손을 잡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장애인 선교회 이사장 김 홍민 권사

감사의 글



2008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서로 잡은손"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동산에는 벚꽃, 목련, 개나리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찬양을 하며
춤추는 수양 버들나무는 웃음을 선사하는 생명의 대향연으로 충만한 계절 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고귀한 생명을 동일하게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하글을 보내주신 부시 대통령, 을 비롯하여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 장애우들 을사랑하며 섬겨주신 이웃들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일체됨을 다짐하며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

오늘의 모임은 하나님의 복되신 은총과 선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의 희생적인 수고를 통하여
사라진 에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한 지상의 천국지점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그리고 후원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간곡히부탁드리는 바는
우리 선교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위에

우리의 하나님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제 장애인 선교회 회장 황은영 목사



국제장애인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nc



THE WHITE HOUSE
WASHINGTON



APRIL 19, 2008

I send greetings to those gathered for the 2008 "With Our Hands Together" event, hosted by the International Mission Association. All our citizens deserve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Across our Nation, organizations like yours are dedicating their time, talents, and energy to support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By providing important service and programs to people in need, you are demonstrating the good heart of America.

My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helping Americans with disabilities live and work with greater freedom. Through the New Freedom Initiative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we are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gain greater access to the workplace, school, and community life. By building on this progress, we can create a society where all our citizens are encouraged to reach their potential and achieve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ambitions.

I appreciate the International Mission Association and all those dedicated to enhancing the liv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Your efforts reflect the compassionate spirit of our country.

Laura and I send our best wishes.

국제 선교협회가 주최하는 2008 우리서로 잡은 손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시민은 "American Dream"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 전역에 국제선교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봉사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미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ew Freedom Initiative Act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직장, 학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더 나아가 우리는 시민 전체가 개인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에 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국제선교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곧 우리나라의 사랑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 아내 로라 와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APRIL 19, 2008

 국제장애인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nc



Dear Friends:

It is my pleasure to send greetings to everyone attending the 17th annual event "With Our Hands Together"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for Disabled.

Tonight's event brings the community together to show our support and compassion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ince its inception, the International Mission of the Disabled has provided social service and education and has promoted the rights and well-being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gether, let us work to ensure that all people receive the resources and support they need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realized their dreams. You have my best wishes for a wonderful event.

Sincerely yours,

Hillary Rodham Clinton
United States Senator

장애인 선교회의 17회 우리서로 잡은 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저녁 행사는, 지역 사회전체가 모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지원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장애인 선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복지와 교육을 도와 왔으며, 저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함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nc.



DAVID A. PATERSON
GOVERNOR

THE STATE OF NEW YORK
EXECUTIVE CHAMBER
ALBANY 1224



APRIL 19, 2008

Dear Friends:

I am delighted to send greetings to all gathered for the 17th annual celebration of "With Our Hands Together" hosted by the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understanding for those with special needs remains a priority of New York State. This occasion brings together a community of generous individuals in a show of concern and compassion for persons who currently live with disabling condition.

As someone who understands the challenges of visual impairment, I am especially award of the difficulties facing those living with any form of disability. As Governor and a committed public servant, I will continue to fight for their rights each and every day.

While there has been progress, we recognize that barriers still exis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event reinforces support for individuals confronting these health challenges and invites all to help them achieve greater independence and inclusion in society. I applaud this outstanding expression of care for many people who undoubtedly will find great comfort in the love they receive from family and friends.

I thank those present this evening, for their valuable role as a source of positive guidance and encouragement for individuals facing life's difficulties. It is inspiring to know that a sense of hope and optimism endures strongly among so many.

Best wishes for a memorable and successful event. My warmest regards to all.

Sincerely,

David A. Paterson

David A Paterson

국제장애인 선교회가 주최하는 17회 우리서로 잡은 손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지닌 분들에 대한 사회 계몽과 이해를 추진하는 일을 우리 뉴욕 주의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오늘 행사에 우리 주위에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기위해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후원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시각 장애인으로서) 어떤 형태이든지 장애를 지고 사는 분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날마다 저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오늘날 첨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에게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장애를 지닌 분들을 지원하여, 저들이 더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있고, 또 사회의 동일한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재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 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과 찬사를 보내며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희망과 선한 기대감에 가득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nc



THE CITY OF NEW YORK
OFFICE OF THE MAYOR
NEW YORK, N.Y. 10007
APRIL 19, 2008

Dear Friends:

It i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everyone to "With Our Hands together," the 17th annual event hosted by the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Since 1990, this organization has provided tremendous support to New Yorkers with disabilities. From education and service programs, to social advocacy, to spiritual ministry, the services provided by this organization are invaluable contributions to their clients' quality of life. Today's exciting event is terrific opportunity for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to celebrate their years of success-and to renew their commitment to helping those in need of a helping hand.

On behalf of all New Yorkers, I commend everyone involved with the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for helping City residents with disabilities achieve their dreams. Please accept my best wishes for an enjoyable event and continue success.

Sincerely,

Michael R. Bloomberg
Mayor

국제장애인 선교회가 주관하는 제 17회 우리서로 잡은 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990년부터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장애를 지낸 뉴욕시민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교육과 봉사, 복지, 협력 및 신앙적 사역들을 귀 선교회에 관계된 모든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더 없이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아름다운 행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축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많이 돕기로 재 확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뉴욕시민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애인 선교회 여러분들에게 모든 뉴욕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행사와 또한 계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에 50만 뉴욕한인 동포들과 함께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제장애인선교회의 김홍민 이사장님, 박선숙 총무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제장애인선교회는 지난 1990년 결성된 이후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셨고 이는 많은 한인동포 단체들에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행사를 통해 장애체험을 한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되고, 신체적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반인보다 훨씬 값진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한발 나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신념으로 장애인들이 역량강화를 통해 당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사회 참여와 자립, 자활의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를 통해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걸음 나아가고,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과 같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비로소 그 소망은 무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된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져 밝고 희망찬 뉴욕한인 동포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2008년 장애인의 날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오늘 행사를 위해 힘쓰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9일
뉴욕한인회장 이 세 목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rd 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 FAX. 718.321.0105



국제장애인선교회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nc



2008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를 주최하는 국제장애인선교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 재활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기능을 잃고도 훌륭한 작곡가가 되었고, 우주형성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블랙홀의 정체를 밝혀낸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극심한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장애를 굳건한 의지로 극복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에 참가하신 장애우 여러분과 가족들 또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황동익 목사



국제장애인선교회 연혁

90.06.14	첫 설립 준비 기도모임 (142-42 Franklin Ave. 지하에서 시작)
90.07.03	할렐루야전도대회 수화통역 시작 (매년)
90.07.04	수화교실개설(한국수화-정달영, 영어수화-이길동, 수화찬양-전근희)
90.07.08	농아부개설-주일 대예배 수화통역-정달영(92. 5 귀국)
90.07.21	설립예배: 회장: 김윤걸 장로 고문: 이승원 목사 총무: 양정숙 전도사
90.07.	사무원: 전근희(97. 8 사임)
90.10.	점자특강: 이재서 전도사
90.12.25	선교회 회지 "돌단" 발행
91.03.	수화찬양단 조직
	월간입체낭독 재가장애인에게 Tape 보급: 이미경 집사 제작(92. 5 까지)
91.04.02	법인체 등록
91.07.18	이사장: 심의남 목사(92. 5 사임)부이사장: 김윤걸 장로 회장: 이승원 목사 총무: 양정숙 전도사
91.10.27	총무: 변창국 감도사 부임(92. 8 사임)
92.01.17	'저 광란한 빛을 향해' K.C.B.N 방송 시작(매주 토 95. 3 까지)
92.03.15	양정숙 선교사 중국 파송(3/15/92)~ 6/27 04(파송선교사 사임)
	장애자재활센터 운영(7/92),전도원훈련중심(10/93), 음성나눔자손 지원
92.04.04	토요모임 개설(장애인자치모임: 예배와 전교)
	정신지체아동 토요교실 개설(93. 5 까지)
92.04.25	장애인 야외모임 시작(년 2회: 춘추)
92.06.18	이사장: 김윤걸 장로(93. 11 사임) 회장: 이승원 목사(94. 5 사임)
92.11.15	총무: 김해근 전도사 부임(93. 6 사임)
93.04.24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작(제1회 '우리 서로 잡은 손')
93.07.	구화훈련: 실비아 장, 청각장애인의 이해:한일남 특강
93.08~12	컴퓨터교실: 조경희선생 지도, 영어성경교실: 신창현선생 지도
93.11.02	총무이사: 임선숙 사모 부임 전근희 간사로 임명
93.12.26	이사장: 양치운 장로(99. 2. 28 사임)
93.12.26	이사:김충민집사, 신명규집사, 정경자집사, 여선우집사, 우재면집사, 이영희집사
94.01.23	김윤걸 장로-김선순 권사 부부선교사 러시아에 파송: 믿음장로교회 설립
	지역: 모스크바브리하노(5/1/94), 고라스노고루스꼬(11/6/94), 체루다노브스끼 (11/6/94), 엘렉트로자보드스까야(3/5/95), 광고비(7/9/95), 이선득의(11/5/95)
94.04.21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제2회 '우리 서로 잡은 손')
94.04.20	선교회 회지 명칭을 "우리 서로 잡은 손"으로 변경
94.06.19	국제병원선교회교회설립(Gold water Memorial Hospital Chapel)
	임 선숙사모 (6/19/94)
94.07.31	아가파한인교회(장애인교회: Y.W.C.A. 감당) 설립 추진
94.09.	드림교실 개설: 조경희선생 지도
94.09.10	사무실 이전(36-09 Main St. #201 Flushing, NY 11354)
94.10.03	'기뻐하며 감사하며' K.C.B.N. 방송시작: 임선숙사모 인도
94.10.29-30	장애인수련회 실시(가족 수련회) 감사 황은영 목사님
94.12.01	비영리단체 등록
95.01.01	필리핀 행인사역자: 이태길-노환진 선교사 지원시작
95.02.27	양로원사역 개설(Franklin Nursing Home 월요일예배): 김길화목사 사역시작(95. 5부터)
95.03.01	윤정희 감사 부임 (2005.7월 사임)
95.04.18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제3회 '우리 서로 잡은 손')
95.09.	영어수화교실: Steven Scouten 선생 지도
95.10.01	사무실 이전(36-09 Main St. #9B Flushing, NY 11354)
95.10.14	생활영어교실 개설: Rev. Doug Bolan 지도
96.04.23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제4회 '우리 서로 잡은 손')
96.08.	양로원사역 개설: Waterview Nursing Home (주일대예배: 조태호목사인도)
96.08.	양로원사역 개설: L.I. Care Center (주일대예배: 김길화목사 인도)
96.09.	양로원사역 개설: Union Plaza Nursing Home (주일대예배)안병호목사사역시작(4/6 97)
96.10.01	유선영 감사 부임(98. 8 사임)
97.03.01	박지나 감사 부임(00.12 사임)
97.04.20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제1회 "열린 음악회") 장소: 퀸즈칼리지 콜든센터
97.09.	양로원사역 개설: Union Plaza Nursing Home 목요일로
97.11.31	1.5세-2세 장애인의 모임 "소리회" 제1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찬양집회 장소: 후러싱제일교회

98.03.25	양로원사역 개설: Flushing Manor Geriatric Center 수요프로그램시작
98.11.01	노기송목사(99.7월 사임) 김중성목사(00.12 사임)조태호목사 (01/ 12시작)
98.12.30	소리화 제2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집회 장소: 후러심재일교회
98.12.	국제장애인선교회 장소 이전 39-08 Janet Pl. Bldg #3 Flushing, NY 11354
99.03.01	Lift-Van 구입.
99.03.01	김홍민 이사장 부임, 계연규 간사 부임(01. 8. 31 사임)
99.03.09	국제장애인선교회 장소 이전예배
99.04.20	뉴욕 '99 장애인의 날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 장소: 퀸즈한인교회
99.04.28	뉴저지 '99 장애인의 날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 장소: 배디니교회
99.08.24	국제장애인선교회 뉴저지 지부 Livingwater 선교회 설립예배
	김동진 집사 이사로 추대
99.10.02	장애인과 봉사자 대상 "컴퓨터교실" 시작 감사: 권혁한 목사 시간: 4시 30분
99.11.01	소리화 제3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집회 장소: 후러심재일교회
99.11.13	"자폐아동의 미술치료를 위한 워크숍"
99.11.18	장소: 뉴저지배디니연합교회 감사:유경옥(2회)
	자원봉사자 총동원 모임 장소: 국제장애인선교회
00.04.20	2000년 장애인의 날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 장소: 뉴욕장로교회
00.10.01	국제장애인선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예배및 감송호목사 필리핀 선교 파송예배
	장소: 퀸즈중앙장로교회
01.04.22	2001년 장애인의 날 "제3회 열린음악회" 장소:뉴욕장로교회
02.01.03	국제장애인선교회 자원봉사자 총동원모임 장소:국제장애인선교회
02.02.01	임무송 장로 이사로 추대
02.04.28	2002년 장애인의 날 "제4회 열린음악회" 장소:뉴욕장로교회
02.10.18	선교회고문, 지도목사추대: 안창의목사, 방지각목사, 김남수목사, 이영희목사, 송병기목사,김재열목사,고석희목사,,김수태목사,조진모목사, 허상희목사, 이길호목사, 황상하목사, 김남수목사, 노기송목사
03.02.03	단기선교훈련 (2/3-6/23) 강수태목사,김사무엘목사,안애단신부,안관현목사, 김재열목사, 황상하목사 광경구목사, 김남현선교사 최요섭목사, 우형철선교사, 신동우목사, Edward David목사
03.04.20	2003년 장애인의 날 "열린찬양대축제"행사 장소:뉴욕장로교회
03.06.27	양치운장로 환송예배(중국)
03.10.25	선교회사무실 이전
	주소:135 -53 Northern Blvd., #3Fl, Flushing, NY 11354
03.11.29	선교회 이전예배
04.02.14	장애우 단기선교훈련프로그램 시작 (2/7-7/31)
04.04.25	2004년 장애인의 날 "열린찬양대축제"행사 장소: 뉴욕장로교회
04.06.21	탄자니아 단기선교 유치원교사학교및 와이엘 지도자 영어,생물
04.09.07	풍선교실 (영유학 집사님)
05.04.23	2005년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 손"행사 "일일 장애체험 및 축제 한마당"
	장소: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05.08.15	박화중, 배홍준 간사 부임 (06. 9 박화중 간사 사임)
05.09.05	IMM-TV 국제 선교 방송 개국 (Time Warner Cable-MKTV Ch.512)
05.10.15	FOR 2007 Fire of Revival 부흥 운동 시작
06. 11	석소연 간사 부임
05.11.13	FOR 2007 웨일즈 찬양 사역자 Huw Priddy 초청 부흥 찬양 집회
05.12.10	FOR 2007 COME and SEE 청년 집회
06.02.04	FOR 2007 예수 전도단 Campus Worship 찬양 집회
06.04.04	이경원 집사 이사로 추대
06.04.22	2006년 장애인의날"우리서로잡은 손"행사 "일일 장애체험 및 축제 한마당"
	장소: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06.10	국제선교협의회로 Title 변경
06.12.10	JSTV로 송출채널 변경 (Dish Network Ch.654)
07.04.08	안병호 목사 사임
07.04.22	2007년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 손"행사 "일일 장애체험 및 축제 한마당"
	장소: 순복음뉴욕교회 채록관
07.07	G.E.L.C 비행청소년 영어캠프 (여주)
07.11	P.K. 순회공연 거리전도 - Central Park



국제장애인선교회에서 하는 일

Who We Are

Established in 1990, International Missions Associations, also known as the International Mission for the Disabled, is a federally-recognized 501(c) 3 non-profit organization that ministers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ur staff and volunteers provides spiritual and recreational services, as well as social & physical support. We spotlight the needs of those with disabilities to the community and we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which we all can be more than conquerors for His glory.

WHO WE ARE (우리는...)

1990년도에 설립되어 장애인들을 위해 사역해온 국제장애인 선교회는 미연방정부의 정식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IMA는 신앙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사회적, 물질적 후원들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상기시키며 또한 우리 모두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 *점자교육: 점역자 양성생(한글, 영어)
- *수화교육(한글, 영어): 수화 통역자 양성
-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영어 교육
- *컴퓨터 교육
- *전문강사 초청 특강
- *장애인 가족원을 위한 훈련

Education

- *Braille classes (Korean, English)
- *Sign Language Classes (English, Korean)
- *Advanced Sign Language Classes-For Sign Language Interpreters
- *Survival English Classes
- *Computer Lab and Technology Classes
- *Professional Workshops for the Disabled
- *Recreational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 *Family Camp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전도

- *장애인 방문 전도
- *문서, 비디오, 카세트 전도
- *방송전도
- *수련회 및 장애인 전도 대회
- *암로원, 병원 선교
- *수화찬양단 전도 활동

Outreach

- *Home visitation
- *Literature (Print, CD, DVD) publication
- *Community Service Rally
- *Nursing Homes, Hospitals Activities and Worship services
- *Sign Language Choir
- *Annual retreat for the Handicapped

봉사 및 교제

- *자원 봉사자 조직 및 영결
- *갈 안내, 교통편 제공
- *통역: 수화, 점자, 영어
- *재가 장애인의 심방 및 심부름
- *장애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 *장애인들과의 정기모임 (토요모임, 아외모임 등)

Services and Fellowship

- *Training and Placement of volunteers Interpretation service
- *Helping with Errands and Chores for the shut-in
- *Recreational activities
- *Weekly fellowship for the Handicapped
- *Annual picnic and retreat
- *Introducing newest technology and product in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field



선교

- *해외선교회 개척 - 선교자 파송 및 지원
- *교포 밀집지역 선교지에 재활센터 건립
- *다른 장애인 선교기관과 상호협조
- *장애인 사역을 위한 평신도 선교사 양성
- *선교지원자 어학훈련(영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Overseas Mission

- *Sending and supporting missionaries (Cambodia, China, The Philippines, Peru, Tanzania, Kenya, Somalia, Madagascar, COTE D'IVOIRE)
- *Building Physical Rehabilitation Centers
- *Networking closely with other evangelical Missions organizations
- *Training lay persons for the missions for the handicapped
- *Language schools for the missionary candidates (English, Japanese, Chinese, Russian)
- *Open schools (School for the blind, Early Childhood Teacher's Academy)
- *Wheels of Love - sending wheelchairs to the mission fields

Media Outreach

- * Radio Broadcast - KCBN "Rejoice with Thanksgiving" - a Live Broadcast hosted by the director Park
- * IM-TV - TV programs to connect the mission field with missionaries and supporters in order to let the audience know the awesome work of God through His faithful servants throughout the world at home and overseas.
- * Hub ministry - partners with and rallies round Christian communities for the cause of Worship and Evangelism
- * Materials for evangelism (CDs, DVDs) to churches and missionaries

What We Plan to Do (앞으로 우리는...)

세계 기독교 학교 네트워크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 차세대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현장으로 파송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탁월한 기독교 교육을 하도록 인적자원과 교육적 자료들을 공급 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및 헬스클럽

스포츠와 여가선용은 건강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은 절망과 좌절감을 갖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팀스피릿과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아가 인격과 단합정신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체육관 및 헬스클럽은 특별장비들이 필요한 장애인들 보다는 일반 정상인들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관 및 헬스클럽이 절대 필요합니다.

국제 NGO들과의 상호교류

UNA NGO 멤버로서 다른 국제적 비영리 단체들과 친밀히 교류하여, 거의 보조를 받지 못 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IMA를 통하여 상당한 자원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What We Plan to Do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s Network To recruit and equip desperately-needed Christian school teachers and send them to the mission fields where the leaders of future generations await. To provide Christian schools with adequate personnel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they may strive for excellence in Christian education worldwide.

Gym and Health Club for the Handicapped

We cannot emphasize enough the importance of sports and recreation as part of a healthy life style. However, it is so much more importa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y are more susceptible to feelings of hopelessness in that they struggle with thoughts of rejection on various levels. Sports and recreation offer excellent opportunities to build team spirit and self-confidence, which in turn strengthen character and the principles of teamwork. Most public and commercial gym facilities are geared to main stream clients not for the handicapped who need specialized equipments and accessibility.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NGOs

As a prospectiv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ference, it is our duty to maintain close working relationships with other worldwide organizations so that we may be able to channel the considerable amount of available resources to missionaries who otherwise receive little or no support for their ministries.



장애인 에티켓

휠체어 장애인과의 대화

휠체어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있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으며,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경우 햇빛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합니다. 의자나 앉을 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제안합니다. 용크리거나 푸그리고 앉게되면 곧 고통스럽게 되므로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장애인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좌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장애인들은 그러한 감정의 표면에 반감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유머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며 장애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화제가 처음에 장애인에 의해 제기된다면 질문하는데 자유롭게 느낄 것입니다. 그저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라면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화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 밀어주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휠체어를 밀게되면 두 사람이 휠체어를 조종하게 되어 휠체어가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두꺼운 카페트를 지날 때나 가파른 언덕 길을 오를 때, 또는 피로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밀어 주기를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밀어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바퀴가 튀어나오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움푹 패인 곳이나 잔흙탕 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지를 물어 본 후 밀기 시작해야 합니다.



Wheels Of Love

국제장애인선교회의 '사랑의 수레바퀴 보내기' 운동

세상 문명이 발달하여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꿈꾸는 세상에

지구 곳곳에서는 두다리로 자기 삶의 환경에서도 걸을수가 없어 몸전체로 구르며 기어 다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남미 페루에 휠체어를 보내어 오고 있습니다. 그소식을 듣고 선교지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휠체어 1대가 우리에게 몇안볼 가는 자가용보다 더큰 감동과 기쁨을 전할수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레바퀴를..

'사랑의 수레바퀴 보내기'운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eels of Love, wheelchair outreach program, collects a wheelchair, crutches, canes, and walkers across the Metro NYC area and distributes to disabled individuals living abroad. According to the JAF International Ministry, the WHO estimates that "there is a need for 20-30 million wheelchairs around the world. In some of these countries the cost of a wheelchair can equal a year's wages, resulting in the impossibility for people affected by disability to ever receive one. Living in isolation, lacking simple mobility and cut off from life, many of the disabled are also tragically cut off from the local church. As a result, many have never heard the gospel message or experienced the love of Christ."

Wheels of Love endeavors to assist the missionaries who have been laboring to meet the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of the disabled around the world by providing them with wheelchairs and other rehabilitation equipment in the love of Jesus Christ. By collecting, cleaning and transporting the donated wheelchairs to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name of the Lord, Wheels of Love is creating disability awareness and providing us with an opportunity to be a partner in global missions for His glory.

You can send a brand new wheelchair for \$150.

★ 참여 방법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휠체어를 보내주세요

1대당 \$150을 후원해 주시면 구입하여 보낼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곽기중, 손희실 선교사 (코트디 부아르)

2006년 8월 29일 '아비장'을 출발하여 11월 29일 다시 귀일하기 까지 한국과 일본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한양 콘서트와 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52개 처 교회와 9개 학교, 직장 예배 4회, 교도소 집회 1회, 방송과 신문 인터뷰 7회 등 총 88회의 공연과 인터뷰 등의 매우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돌아 왔습니다.

장장 3개월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우리 일행의 이동에 필요한 자동차와 숙소를 제공해 주신 충신교회(한재은 목사님)와 일본 방문 시 차량과 숙소를 제공해 주신 동경교회, 오사카교회, 나고야교회와 지방 여행시 숙소를 제공해 주신 강릉반석교회, 여수성광교회, 전주성남교회, 세계로선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행을 초청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작곡 발표회'의 수익금 전액을 선교센터 부지 구입비로 헌금해 주신 김석균 전도사님을 위시한 모든 교회들과 개인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헌금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장에 꼭 필요한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땅을 찾고 있습니다. 적당한 땅을 발견하면 다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벨빌(Belle Ville) 초등학교'의 소망

티없이 맑고 밝은 410 여 명의 새 학생,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저 열심히 공부하며 뛰놀기만 해야 할 저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 학비를 내지 못해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의 실직으로 수입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끼니정성을 해야 하는 형편이기에 자녀 교육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내전 까닭에 경기가 위축되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해 듣고 꿈나무들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손길들이 생겨 난 것입니다. 한국의 몇 가정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벨빌초등학교' 아이들과 장학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매 달 만원씩, 혹은 35,000원 씩을 지원하여 한 어린이의 학비를 도와 주는 후원자들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국의 후원자들을 통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학교 교직원 모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마운 후원자들의 소중한 정성을 가슴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할 채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장차 자신들도 남을 돕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 '아티꾸아(Attiekoi)교회 예배당 건축 공사

교회 설립 6년 만 만에 그토록 소망하던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기도하며 그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몇세대 팔아에서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 드렸던 한 어린아이처럼 작은 액수지만 매 주일 건축헌금을 드려서 시멘트 열 포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열망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순수한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울산 한마음교회(문용남 목사님)'가 아티꾸아교회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이 마을의 주민 대 다수가 천주교와 하리스트교(아프리카 이단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망하며 확신하기는 이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아티꾸아' 마을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정으로 이 마을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무쌍(Moussan)목사와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새로 건축된 예배당 안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면서 지금 온 성도들은 건축 공사와 더불어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희 가정을 부르셔서 수종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윤봉석, 서순희 선교사 (탄자니아-모로코로)

“내가 네게 병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1-9)



선교지 탄자니아로 떠나오기 앞, 이주 전부터 이따금씩 몸서리치게 찾아 오는 불안과 초조, 속을 모르는 주변에서는 “좋겠다”는 격려 반 부러움(?) 반 등의 티끌이라고 던지지만, 속으로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은 몸을 원근 만근으로 다리의 힘을 쭉 빼버립니다. 넘어야 할 산들, 풀이 할 관계, 감당 해야 할 고통, 무엇보다도 농사꾼인 저에게 물은 혈관 속의 피와 같은데 아무런 대안 없이 또 다시 뜨거운 땀방아 아래 갈증에 어쩔줄 몰라 하는 작물과 텅달아 사방으로 헤매다 그만 나 역시 지쳐서 주저 앉았던 시간 가운데 홀로 서야 한다는 두려움은 너무나 큰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의 큰 짐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재정과의 싸움. 선교사의 재정의 필요는 밀 박진 독에 물 붓기 라지만 사실 저희 재정은 모두 한 달에 약 천오백불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재정은 한 선교사의 한 달 생활 재정이니 이 재정을 가지고 삼 천불이 넘는 사역의 살림 재정을 꾸려가는 서 선교사의 믿음은 늘 하늘을 치고 땅을 찰니다.

이원년도에 처음 탄자니아에 올 때는 외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단돈 100원의 후원 약속도 없이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두 자녀와 가방 몇 개와 주머니에 단돈 구백불을 가지고 탄자니아를 향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의 두근거림과 설레임은 마음 안에는 염려와 걱정이 없지는 않았지만 더 큰 마음은 어떤 기대와 사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바로 가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훈련원과 농작물을 키우는 농장이 있고, 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날 기다리고 있고, 고달프게 번 돈을 아낌없이 후원하는 동역자와 밤낮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저는 분에 넘치게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나의 보습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부침개 내리누르고 있는 이 집은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의지, 집념, 욕망, 인간의 열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소가 병이 들어 돼지고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모슬렘 사람들도 돼지 고기의 지방이 에이즈에 좋다고 환자들을 먹여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의 돼지를 키워 판다면 학생들의 교육 및 바라지와 농업고등학교 설립준비에 조금씩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저희동네의 신학교에 다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기를 낳은지 얼마 안되어 잘 먹지 못하여 죽은일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역이 교회가 든든히 철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우선 몇 명의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돼지를 두마리씩 나누어 주어 사모님과 아이들이 키우게 하고 크면 파는 일까지 저희가 함께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년뒤에 다시 새끼를 낳으면 돌려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잘 해 나간다면 다른 어려운 목사님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돼지를 키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에, 그리고 풍토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땅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씨들원을 통하여 배출된 학생들과 함께 일할 농업전문인들을 양육 시키기 위해 농업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발한발 주님께서 인도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땅의 가난과 어둠이 물러가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 저서 이 땅이 열방 가운데 큰 빛을 발할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시환, 박명화 선교사 (탄자니아-다레스 살렘)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집니다. 번개를 동반한 대량의 축복!!!
 이곳에서 비는 하늘의 큰 축복이란 사실을 익히 아시지요???
 비오는 하늘을 바라 보며 모두가 기뻐합니다. 기다리던 비!! 기다리던 축복!!
 엄청난 비가 온종일 와서 옥수수는 무럭무럭 자라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전봇대가 넘어져서 어제 오늘 전기 없이 살다가 이제야 26시간 만에 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이제야 전합니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비가 내리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라서 강수량이 많으면 어김없이 전기가 나갑니다. 천진한 아이들은 비 축제 속에 옷을 적시며 제가 어떨 적 놀던 것 처럼 진흙탕 속에서 잘도 눕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설렘으로 펜을 잡니다.
 예수전도단 제자훈련센터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센터부지를 사고 전력공사에 신청한 전기!!!
 2년8개월 만에 전기를 설치해 주어서 어제부터 전기가 들어옵니다.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예뻐를 드리는 이 기쁨!!
 옛날 35년전에 제가 살던 시골에 전기 들어왔을때 그 기쁨과 똑같더군요. 너무 기뻐서 저희 스텝들과 얼싸안고
 춤을 추었지요. ^^

예배실과 식당이 완공되고 스텝숙소가 거의 다 지어지는데, 집이 없는 한 현지인 스텝 가정은 오늘서 부터 제자
 훈련 센터에 들어 와서 삽니다. 키보나 라고 불리는 형제님 가정인데, 물론 수도물도 없이 빗물 받아서 살아야 하지만,
 전기가 들어온 것으로 충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결혼은 큰 3년간 기도하던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달라던 뇌물 한 톨을 안주고도 이들이
 전기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이웃들은 저희가 외국인이기때 많은 뇌물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주었다고
 노골적으로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썩 웃으며 답하지요. 뇌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맘을
 움직여 보라고 말합니다. 전기가 들어 왔습니다.

이젠 우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빗물을 의지해서 건축도 하고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샘물을
 팔수 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붙이시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때 마다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게 행하시고 소망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를 늘 신뢰함이 저의 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분 안에서
 더 배우는 겸손한 종이 있습니다.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분 임사모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던 파울로를 기억하십니까. 저희집에서 일하면서 목사되기를 갈망하던 시골
 청년, 파울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두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졸업하면 자기 시골(마나라)
 아무사에서 7시간 더 들어 가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합니다. 계속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파울로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권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참
 성장했다 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고 기도해 드려준 젊은이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파울로를
 보고 있으면 아주 흐뭇합니다. 지금 땅학이라서 저희 집에 머무는데 참으로 귀합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선교지에서 온 편지

사랑!

최재선, 이종순 선교사 (탄자니아-아루사)

이제 며칠 후면 2007년이 시작 되네요.

새해를 앞두고 음카타를 위한 특별 기도부탁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음카타에 대해 이미 여러번 기도 제목들을 나눈적이 있는데요, 1996년 홍천 DTS 팀이 그쪽 지역으로 처음 전도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한 여 선교사님이 한 쪽 팔을 잃은 후 오랫동안 그 팔을 개척하는 것이 멈추어 섰다가 다시 2002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6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고 현재 그 땅가운데 우물을 파고 유치원을 짓기까지 참으로 많은 기도와 수고의 댓가들이 있었읍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큰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죽기도 하였고 올 해3월에 또 다른 교통사고로 차가 심하게 구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년1월에 오는 전도 여행팀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다녀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져 차가 물에 쓸려 갈 뻔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요. 여러번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말라리아와 장티푸스로 그곳을 다녀온 스템들이나 일꾼들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음카타는 무슬렘 지역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무당이 되기위해 신내림을 받거나 신점을 하기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을때 그곳의 무당들이 저희 땅에 들어와 향아리를 제프리며 죽음의 저주를 퍼 부었고 그 이후에도 줄곧 저희 땅 안에 있는 3개의 개미 집 언덕에 와서 계속 신점하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카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걸려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사 먹기보다는 대부분 무당을 찾아가 처방을 받읍니다. 무당들은 병든자를 주로 높은 언덕이나 수풀로 데리고 가서 신점하며 여러가지 처방을 내리는데 그 장소가 바로 저희가 구입한 땅 안에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일들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 개의 개미집 언덕이 각각 2미터 정도의 높이와 넓이가 한개는 6미터 정도 또 다른 한 개는 5미터, 나머지 한 개는 3미터정도가 되는 것으로보아 몇 십년의 세월속에 지어진 개미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몇 십년동안 그곳에서 우상숭배하며 신점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왔다는 얘기지요. 현재 저희 땅 안에는 경비원만 살고 있는데 무당들이 들어올때마다 경비가 그들을 찾아내긴 하지만 아직도 주로 경비가 없는 주일에 무당들이 병든 자들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과 함께 들어와 그곳에서 신점하고 나름대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저희가 그곳에 가서 기도 했을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개의 언덕을 허물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1월에 오는 팀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땅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들이 그들의 예배처소를 허물러 할때 가만히 있을리 없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1월 2일부터 8일까지 한국 대학부에서 온 '아프리카 팀'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또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시드니에서 온 DTS팀과 홍천DTS팀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사역과 함께 그 개미집 언덕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팀들이 오고 가는길에 교통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 음카타에서 머무는 동안 학생들과 스템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 그 땅의 성도들과 특히 각 교회 목사님들의 하나됨을 지켜 주시도록
- 음카타 사역을 이끌어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최 재선 선교사님 가정, 테레비일 나사리 가정)
- 음카타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끈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 팀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망가운데 나아 올 수 있도록.

- 기도 가운데 음카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랑합니다.

꼭 기도하여 주세요.

최 재선 외 음카타를 위해 사역하는 모든 팀들 일동





자원봉사 스케줄

양로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몸이 자유롭지 못해 교회에 갈수가 없기에
본 선교회에서는 이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배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병원선교교회

(94년 6월 설립)
아플라연합감리교회
Asian Assembly of God
새문침례교회
주일예배: 매 주일 오후 4시
Goldwater Memorial hospital A동 1층
One Mail Street
Roosevelt Island, NY 10044

Franklin Nurshing Home

(95년 2월 설립)
김길화 목사
월요일예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1층 Activity Room
119-15 27 Ave., Flushing, NY 11355

Dr. Benenson Rehabilitation

(98년 8월 설립)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김준배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98년 3월 개설)
김길화 목사
4층 Dining Room
36-1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L.I. Care Center

(96년 9월 설립)
Connie Wang
주일예배: 매 주일 오후 2시
1층 Activity Room
144-61 38 Ave., Flushing, NY 11354

Union Plaza Nurshing Home

(96년 9월 설립)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0시
김용철 목사
목요일예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노기송목사, 나광수 목사
박 마이클 목사, 박선숙 선교사 박신래 목사
(97년 9월 개설)
9층 Activity Room
33-23 Union St., Flushing, NY 11354

Waterview Nursing Center

(96년 8월 설립)
김길화 목사
주일예배: 매 화요일 오전 10시30분
2층 Activity Room
119-15 27 Ave., Flushing, NY 11354

